

## “교통 및 숙박 기반시설 확보에 올림픽 성공 여부 달려 있다”

- 도로·철도·공항의 3중 수송 체계 구축 중, 비개최 지역 관광·숙박 대책 필요 -

김재진 |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kits1103@rig.re.kr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에 강원 도내의 모든 도로와 철도들은 인천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람객들이 개최 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한 주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여부가 선수단 및 관광객(관광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교통 시설 구축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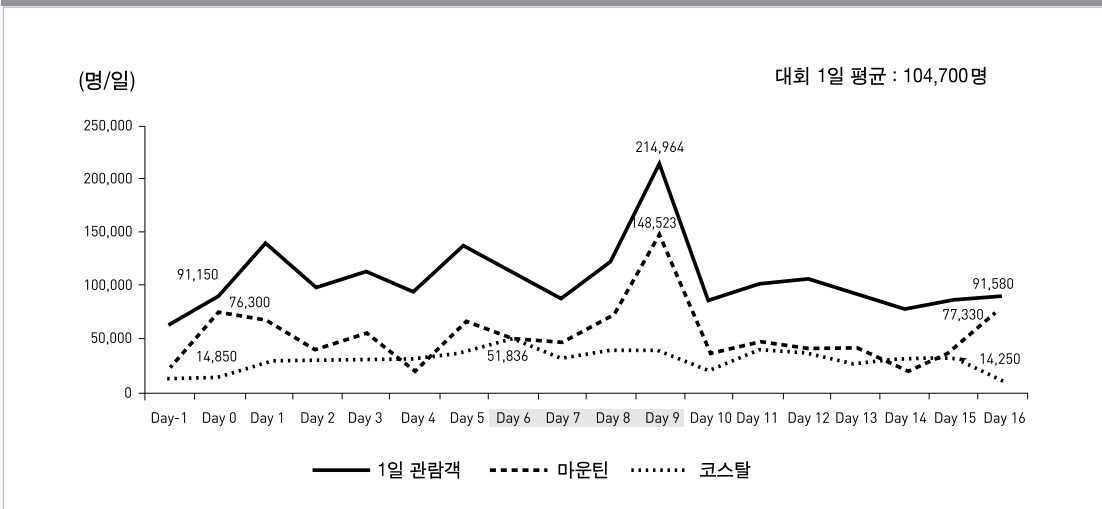
### 설 연휴와 겹쳐 관람객 및 교통량 집중 심할 듯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관람객이 가장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개·폐회식 날이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는 17일

간의 대회 기간 중 4일(2. 15~2. 18) 간의 설 연휴 기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설 연휴 기간에 많은 귀성객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조직위원회의 경기 스케줄을 살펴보면 주요 인기 종목들의 결승 경기가 설 연휴 기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기간 중 1일 평균 약 10만 4,700명 수준의 관람객이 모이고, 최대 관람객 집중일은 설 연휴 기간(대회 9일째, 일요일)의 마지막 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동로인 영동고속도로와 그 주변 국도 및 국지도의 경우 관람객 및 설 귀경 차량들의 유입으로 매우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림픽 개최 지역 및 강원 남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뿐만 아니라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원 북부권역을 찾는 관광객 수요도 매우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관람객 수요 전망



자료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부 자료.

다. 이로 인해 교통량 분담 측면에서 2017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양 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와 동해고속도로(강릉~속초 구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교통난 해소책 - 3중 광역 수송 체계 구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수립한 동계올림픽

수송 전략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노선의 경우 고속도로(영동/제2영동/서울~양양, 중부 및 동해) 중심의 주간선 축과 연계 국도/국지도를 중심으로 한 보조 간선 노선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철도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서울(용산역, 청량리역)~원주~진부~강릉 노선을, 항공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김포)~양양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등 입체적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억원)	공정률(%) 2015년 기준
지방도	지방도 456호	7.20km(2차로)	330	공사 중(80%)
	지방도 408호	5.50km(2차로)	562	공사 중(45%)
군도	군도 12호	1.75km(4차로)	235	공사 중(75%)
	군도 13호	4.22km(4차로)	519	공사 중(75%)
농어촌 도로	도암 205호	2.70km(4차로)	335	공사 중(75%)
	도암 209호	1.36km(2차로)	152	공사 중(75%)
내부 연결 도로	용평 알파인	2.36km(2차로)	128	공사 중(75%)
	올림픽파크	1.26km(2차로)	77	공사 중(60%)
	진부역	8.76km(2차로)	1,214	공사 착공(30%)
소 계	9개 노선	35.11km	3,552	

자료 : 강원도(2015),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합 대책.

3중 광역 수송 체계를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영동고속도로와 원주~강릉 간 철도는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장 진입 도로와 주요 국도, 지방도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숙박시설 확보 현황과 계획**

대회 기간 동안 각국의 선수단들이 머무를 올림픽 선수촌은 현재 평창에 600세대, 강릉에 624세대 등 총 1,224세대 규모로, 두 곳 모두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선수촌 건설은 용평리조트가 맡게 되며, 대회가 끝나면 민간 분양 및 임대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강원도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회 기간 중 전체 필요한 객실 수는 5만 4,500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에서는 관람객의 숙박 편의를 위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와 협의한 대로 베뉴 도시(강릉, 평창, 정선)를 포함한 인근 1시간 이내 시·군의 숙박시설까지 최대한 활용해 분산 수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2월 말 기준 총 숙박시설 물량이 4,842개소(8만 4,363실)로 조사되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시설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운영 인력이 사용할 5,800실

의 숙박시설도 인근 대학교의 기숙사, 대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미 5,164실을 확보한 상태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관람객들의 숙박 이용 편의를 위해 강원종합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언어별 숙박 가이드 제작·배포 등 숙박 정보 제공과 숙박시설 개선,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통 및 숙박 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 내 관광산업 개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 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확충 이전 때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또한 접근성의 개선으로 인하여 기업 유치 환경이 매우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이미 춘천 지역에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철도 개통 이후 연간 방문 관광객의 증가와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비춰볼 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확충되는 원주~강릉 철도와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의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숙박시설의 업그레이드는 강원도 전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계올림픽 베뉴(venue) 도시 및 인근 지역의 총 숙박시설 현황

구분	평창	강릉	정선	양양	동해	속초	삼척	원주	횡성	합계
개소	845	963	655	767	189	269	397	404	353	4,842
객실	13,718	14,818	7,924	8,340	4,356	17,881	3,983	9,930	3,413	84,363

주 : 2015년, 2월 말 기준.  
자료 : 강원도 보도자료(2015. 11. 11).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 향후 과제

첫째, 개최 지역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이미 개최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 제한뿐만 아니라 차량부제 실시 등의 다양한 교통 운영 계획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교통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첨단 교통 운영 체계의 사후 활용 방안이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수송을 위해 CCTV를 비롯하여 TMC(교통관리센터) 등 각종 첨단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회 기간 동안의 교통 상황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입된 각종 첨단 교통 시스템은 주로 올림픽 개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해당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인수받아 지역 내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

계올림픽을 계기로 갖추게 될 첨단 교통 시스템의 사후 활용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계올림픽 교통 수요 분산 운영 정책에 따른 비개최 지역의 관광·숙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회 기간 동안 국내 각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는 평창과 강릉으로 진출입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주로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설 연휴를 포함하여 대회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람객들의 절반 수준이 강원 북부 지역에 위치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개최 지역으로 진입할 것이다. 따라서 대회 기간 동안 강원도 및 개최 지역을 방문하는 관람객(관광객)들의 이동 범위가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최 지역은 물론 비개최 지역도 관람객(관광객) 수용에 대비한 관광 및 숙박 대책 준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CERIK